

『瀟灑園事實』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

김 대 현*

차 례

1. 머리말
2. 『瀟灑園事實』 권13 「諸賢題詠唱酬」의 구성
3. 인재 양진태의 한시 작품에 대하여
4. 인재의 「瀟灑園6絶」에 대한 고찰
5.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瀟灑園事實』에 실려 있는 「諸賢題詠唱酬」 부분을 살피면서, 특히 인재 양진태의 漢詩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인재 양진태는 『소쇄원사실』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문집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의 문학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책 『瀟灑園事實』에 그의 시가 47수 실려 있어서, 그의 문학세계의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남아 있다.

그의 시는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즉사』 시를 차운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점도 소쇄원의 대표적인 원운시가 바로 『소쇄원즉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소쇄공유적십도』, 『고암공유적십도』라는 시를 남겨서, 遺蹟圖 그림 병풍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 완성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소쇄 고암 두 사람의 열 가지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를 지어 유적으로 남기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전통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소쇄원48영』을 보완하는 4영을 더 짓는 작품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쇄원6절』이라는 시를 남겨서, 인재 양진태,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영』이 처음에는 6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재의 『소쇄원30영』의 일부나마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인재는 족보 발간을 비롯하여, 문종의 현창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시에서도 소쇄원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면에서 시 작품 창작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 소쇄원, 『소쇄원사실(瀟灑園事實)』, 인재 양진태, 방암 양경지

*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소쇄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개인원림이다. 전남에는 소쇄원 원림이나 백운동 원림, 보길도 원림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원림들이 많다. 원림에는 누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누정에 대한 조사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전남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알다시피 누정 현판을 조사하고 입력하는 작업이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몇 년에 걸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잘 마무리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바가 많다. 최근에는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서 주축이 되어, 호남지방의 누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¹⁾ 그 결과로 호남에는 3700개소가 넘는 누정 이름과, 건립에 대한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마 이 자료정리가 좀 더 보완된다면, 호남에는 약 4천여개소의 누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잘 알다시피 누정의 주변에 조경을 하여 공간적인 완성도를 이룬 곳이 ‘원림’이다. 그 동안 ‘정원’이라는 일본에서 잘 쓰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원림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사용되던 용어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누정에서 더 나아가 원림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림은 문화 관광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림 가운데 ‘소쇄원 원림’은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며, 조경이나 건축 분야에서도 제법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²⁾

언젠가부터 소쇄원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³⁾ 그래서 많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알

1) 김대현 외, 『호남누정 기초목록』,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 2015.

2) 전남대에서 소쇄원 연구회를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 천득염 교수 등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소쇄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양 지역의 누정에 대한 안내서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졌고, 주요 현판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소쇄원에 대한 안내서도 만들어졌다. 천득염·김대현 공저, 『소쇄원』, 심미안, 2018.

3) 소쇄원의 역사와 문학 활동을 통시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서가 권수용의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학 연구』(경인문화사, 2009년)이다. 문학적으로 논의된 많은 사실이 이 책에 언급되어 있다. 또 소쇄원의 역사적 사실을 살핀 김덕진의 『소쇄원사람들』(다할미디어, 2007) 등이 있다.

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소쇄원 연구의 일차자료 가운데 중요한 문헌에 대한 정리와 번역은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였다. 많은 문헌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소쇄원사실』이나 『방암유고』를 비롯한 몇 종의 문집들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하여, 이제 그 번역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20년 전 필자는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영’ 연구」라는 논문을 쓴 일이 있다.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소쇄원의 양재영 선생은 소쇄원을 보존하는 데 대하여 애정이 아주 많았다. 필자와 함께 만나서 소쇄원에 대한 문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 과정에서 17세기 소쇄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한 편의 논문을 쓴 것이었다. 지금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소쇄원30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으로 약간의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원래 그 작품은 ‘家山30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다.

소쇄원 원림은 하나의 원림 단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누정문학이라는 말 대신에 ‘원림문학’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나의 원림에 대한 모든 문학적인 정리를 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⁵⁾ 소쇄원 원림문학을 구성하고, 이를 연구하여 나가려면 우선 주요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야만 한다.

물론 소쇄원의 역사에서 많은 소쇄원 사람들이 문학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대다수 작품들이 사라져버리고, 현재 작품이 어느 정도나마 남아있어서, 그 문학세계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근대 이전의 인물로 말하자면, 원림의 창건자 소쇄옹 양산보, 고암 양자정, 지암 양자정의 몇 작품을 비롯하여, 영주 양천운, 인재 양진태, 방암 양경지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문집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방암 양경지가 유일하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알다시피 『瀟灑園事實』에

4) 김대현,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영 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한국언어문화회, 2000.

5) 이 ‘원림문학’이라는 말은 필자가 처음으로 간단하게나마 사용하였던 말일 것이다. 위의 논문, 32쪽.

그 작품들이 일부나마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소쇄원 작가들에 대하여 온전한 작가론이나, 어느 한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서의 「소쇄원48명」이 워낙 유명하여,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오래도록 소쇄원 문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양산보의 「孝賦」에 대한 연구 논문,⁶⁾ 그리고 앞서 말한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명」에 대한 연구 논문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

이제는 영주 양천운, 인재 양진태, 방암 양경지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작가론과 작품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주와 인재는 앞서 말했던 『소쇄원사실』에 그들 작품이 일부나마 실려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 책 『소쇄원사실』은 소쇄원 원림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권13 「諸賢題詠唱酬」 안에는 인재 양진태의 한시가 상당수 실려 있어서, 인재 양진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자료를 일별하여 간단하게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2. 『瀟灑園事實』 권13 「諸賢題詠唱酬」의 구성

필자는 앞서 말하였던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명」에 대한 논문을 쓸 무렵에 『소쇄원사실』이라는 책이 있어서, 언젠가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끔 넘겨보곤 하였다.⁸⁾ 『소쇄원사실』이란 문헌은 소쇄원에 대한 대표적인 地方文獻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문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집, 지방지, 문중문헌 등으로 나눈다. 그 가운데 文集은 또 別集과 叢集으로 나눈다. 別集이란 한사람의

6) 한예원, 「양산보의 「孝賦」와 「小學」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31, 2008.

7)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과 작품에 대한 언급은 앞의 권수용의 책에 어느 정도 다루어져 있다. 이제는 이들 개별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8)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20여년이나 지나고 말았다. 그러다가 필자는 작년부터 천득염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는 소쇄원연구회에 합류하여, 「소쇄원48명」이나 「소쇄원30명」 등을 새롭게 읽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 작품에 대한 번역에서 재검토할 부분들이 여러 군데 눈에 띄었다. 그런 부분은 언제 다시 정리하여 연구자들을 위하여 자료로 삼으려고 한다.

시문이 주로 담긴 저술이고, 叢集은 여러 사람의 시문이 함께 담긴 저술이다. 『소쇄원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방문헌이고, 그 아래서는 당연히 文集이고, 또 문집 가운데서는 叢集이다. 叢集은 여러 사람의 시문을 모은 것인데, 그 종류가 또한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 世稿 종류가 가장 많다. 또한 어느 지역에 대한 시문을 모은 총집도 제법 남아 있다. 그런 전통은 예로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근대 무등산권만 하여도 무등산 한시가 모아진 『서석유람』이나, 적벽을 유람한 시들을 모은 『적벽음사』 등의 총집이 남아있다.

그러나 총집 가운데 상당수는 世稿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어느 문중에서 祖孫에 걸쳐 삼대의 문헌이나, 더욱 많은 수대에 걸친 문헌을 집성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世稿도 호남지방에만 수백 종이 남아있다.⁹⁾ 『소쇄원사실』은 어느 면에서 소쇄공부터 영주공, 또 권수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인재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의 관련 시문들을 엮었기에 세고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집안에서 집안의 문헌들을 엮은 경우가 호남 지역에도 여럿 보인다. 해남 윤씨 문중에서 관련 문헌을 세대별로 엮어 편찬한 『棠岳文獻』 같은 책도 그런 종류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소쇄원의 양씨 가문도 정유재란의 화재로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버린 상태에서, 남아 있는 문헌들을 모아서 世稿의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處士公 양산보부터 瀛洲公 양천운까지 세대별로 차례로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평범한 이름은 『제주양씨세고』였을 것이다. 이 무렵 『梁氏家狀』이라는 저술도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또한 양씨 집안의 家狀이라는 뜻이다. 『소쇄원사실』 안에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서도, 그런 문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쇄원사실』 편찬자들은 그냥 평범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소쇄원이라는 남국의 名園이 있었고, 소쇄공 이하 창평의 제주 양씨들은 이 남국의 명원 소쇄원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이름에 소쇄원을 붙이게 되었고, 소쇄

9) 필자가 관여하는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서는 이들 세고를 풀어서 일인일문집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호남 문집 기초목록』이라는 목록집을 간행하였다.(호남지방문헌연구소, 2014년) 그 과정에서 호남지방 世稿 目錄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더 보충하여 세고 목록집을 따로 정리하려고 한다.

원에 대한 여러 작품들과 기록들이라는 뜻으로 책의 편집 과정에서 『소쇄원사실』이라고 붙이게 되었을 것이다.

『소쇄원사실』에서 事實이란 표현도 흔한 것이 아니다. 흔히 개인의 별집을 만들 때, 본인의 시문이 많이 남지 않아, 다른 이들의 관련 시문을 첨가 시켜서 한 편의 별집을 만들 때는 ‘實記’라는 말을 붙인다. 그런 예는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世稿나 實記는 그 다루고 있는 세대의 범위에 따라서, 또 附錄으로 첨가하는 관련 인물들의 시문의 양에 따라서 편찬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 책 『소쇄원사실』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여겨진다. 책의 뒷부분은 발문들을 모았는데 모두 5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양학겸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이 발문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책의 간행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기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소쇄원사실』 3책은 조부이신 인재공(忍齋公)이 모으신 것인데, 선고先考께서 차례로 엮어서 집안에 전한 것이다. 우리 소쇄(瀟灑) 선조는 정암(靜菴)의 문하로서 기묘사화 후 임천(林泉)에 자취를 두셨는데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이 높아 당시 여러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다. 이를 고암공(鼓巖公)에게 전하였으니, 공은 하서(河西)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능히 선업을 빛나게 하였으며, 다시 영주공(瀛洲公)에게 전하였다. 공도 이를 받들어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아쉬운 것은 그 언행과 저술이 모두 다 병화에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조부이신 인재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선현들의 문집에서 그 행록(行錄)을 수집하고, 집안에 전하는 유적을 참고하여, 지명(誌銘)과 장갈(狀碣)을 이서하(李西河), 송우암(宋尤菴), 박현석(朴玄石) 등 여러 선생에게 청하여 얻었다. 선고께서는 겨를이 없이 이를 이어 받아 차례로 엮었지만, 미처 출간하지 못하였다.¹⁰⁾ (중략)

이를 통하여 보면 조부인 인재공 양진태가 시작을 하였고, 부친인 양채지에

10) 右瀟灑園事實三冊，王考忍齋公哀輯之，先君子編次之，以傳于家者也。惟我瀟灑先祖，以靜菴門弟，己卯土禍後，斂迹林泉，道德文章，大爲當世諸賢所推服，傳于鼓巖，公受業於河西之門，克光先業，再傳瀛洲，公不墜家聲。惜其言行著述，並失於兵變。王考自少，搜集行錄於先賢文集，參以家傳遺蹟，請得誌銘狀碣，于李西河，宋尤菴，朴玄石諸先生，先君子繼其未遑，以爲編次，未及刊出矣。〈瀟灑園事實後跋〉

의하여 편찬이 되었는데, 본인 양학겸에 의하여 간행을 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삼대에 걸쳐서 수집 편찬 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편찬과 간행 시기가 길어지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변경되거나 첨가 되는 등 제법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이 책이 그 구성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 책 『소쇄원사실』은 권1에서 13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권1에서 권12까지는 모두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집안의 世稿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권13에는 附錄이라고 하여 「諸賢題詠唱酬」가 실려 있다. 이 논문은 권13의 전반적인 내용, 그 가운데 양진태의 시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중간본 『소쇄원사실』은 석인본으로 1903년에 간행되었다. 중간본을 편찬 간행한 양만환의 가장 마지막 발문이다.

이 책은 우리 선조 『소쇄원사실』이다. 그 편집과 인쇄의 전말은 종5세조 인암공(麟巖公)의 발문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불초의 천박한 글로써 감히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러나 연대가 오래되고 병화의 재앙으로 이 책이 남아 있는 곳은 집안의 한두 집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세말(世末)에 혹시라도 사람의 일에 변천이 있으면 능히 명산(名山)에 묻혀버리지 않겠는가? 내가 이를 걱정하여 집안의 후손 동호(東鎬)와 더불어 문중의 의견을 물어본 지 여러 차례 되었다. 그리하여 약간의 금액을 마련하여 인쇄인에게 맡겨 널리 배포하려고 하였다.¹¹⁾ (중략)

이 글에 의하면 양만환의 5대조인 인암공의 글에 모든 전말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인암공은 양학겸을 가리킨다. 이 글을 보면, 『소쇄원사실』을 다시 보충 편찬하여 간행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가 남아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간행을 한다고 하였다.¹²⁾ 보통 중간의 일반적인 이유이지만, 여

11) 此篇我先祖瀟灑園事實也。其輯編而刷印之原，委咸備於從五世祖麟巖公之跋文，以若不肖之淺薄，不敢贅爲，雖然年代久，而兵燹厄之，此篇之遺存，於子姓者，不過於一、二家也。如今世末，或有人事之變遷，則能不爲名山之藏耶。不肖是以懼焉，與族孫東鎬，詢議於門中者，至於屢次矣。辦得如干金圓，而付於手民，俾圖廣布。〈瀟灑園事實卷之跋〉

12) 이 책 『瀟灑園事實』 또한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의하면 1755년 목판본은 3책 가운데 1책만이 전남대 도서관에 남아있고, 1903년 석인본은 조선대 도

기서도 몇 편의 작품들이 첨가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이 「諸賢題詠唱酬」를 통하여 『소쇄원사실』 편찬 당시 17세기 후반 소쇄원에 대한 여러 정황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인재공의 시를 주목하여 소쇄원을 살펴 볼 수 있다.¹³⁾

『소쇄원사실』 권13 「제현제영창수」에는 모두 61명의 한시 139수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양학겸이 그의 조부 인재공부터 부친인 竹隱 양채지, 그리고 족속인 方巖 양경지 등의 시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통 世稿의 경우에는 제현(諸賢)이란 말은 집안사람이 아닌 다른 성씨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편찬 과정에서 집안 분들과 다른 성씨 분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고, 이 부분을 그냥 「諸賢題詠唱酬」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다. 이 안에 실려 있는 소쇄원 집안사람들의 시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쇄원사실』이 편찬될 당시 소쇄원에서 가장 시문 창작이 활발하였던 이는 인재 양진태와 방암 양경지였던 것 같다. 두 사람은 모두 『인재유고』와 『방암유고』라는 시문집을 남겼는데, 현재 『인재유고』는 분실되어 그 소장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미간행 필사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니, 어디엔가 소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재공의 시가 바로 여기 「제현제영창수」에 47수 실려서 남아 있다. 이는 인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당시의 소쇄원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그 가운데 특히 「瀟灑公遺蹟十圖」, 「鼓岩公遺蹟十圖」, 「瀟灑園四景」, 「瀟灑園六絕」, 「謹暢瀟灑高祖愛日歌辭警示一家人」 등의 시는 소쇄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들 내용과 가치는 다음 장에서 약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방암 양경지의 시가 11수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소쇄원6절」이라고 하여 여섯 절구가 실려 있는데, 이는 이른바 「소쇄원30영」이라고 하는 작품 가운데 6수이다. 종질인 양학겸이 방암 양경지의 행장을 지었는데, 이는 『방암유

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 밖에 담양의 한국사문학관에 박준규 교수의 기증본이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희귀본이 되어 있는 것은, 간행 부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13)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권13 「諸賢題詠唱酬」는 책의 앞 목록에는 「諸賢瀟灑園題詠唱酬 追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권13에는 「諸賢題詠唱酬 附錄」이라고 나타나 표기의 차이가 있다.

고』에 실려 있다. 그 밖에 양학겸의 부친인 梁采之의 1717년 광풍각 중수 상량 시 6수를 들 수 있다.¹⁴⁾ 그 밖에 몇몇 집안사람들은 1수 내지 2수 정도의 시만 선별하여 실고 있는데, 이들과 관련 시문을 통하여 당시 소쇄원 사람들과 교류 하였던 인물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피기 위하여 「제현제 영창수」에 실린 작자와 작품의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하여 적어 놓는다.¹⁵⁾

3. 인재 양진태의 한시 작품에 대하여

앞서 언급하였듯 「諸賢題詠唱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인재 양진태(1649~1714)의 한시 47수이다. 현재 인재의 시는 모두 60여수가 남아있다.¹⁶⁾ 그의 자는 來叔, 호는 忍齋이다. 소쇄공 양산보의 현손으로 정유재란에 소실된 소쇄원의 문적을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여, 가문의 역사를 천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활동하였다고 보인다. 그래서 선세의 행적들을 모아 나갔으며, 소쇄공, 고암공 등의 행장 등 비지류를 송시열, 이민서 등에게 받았다. 이런 내용은 『소쇄원사실』에 실려 있다. 그의 문집으로 4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忍齋遺稿』라고 알려져 왔다.

14) 이 6수는 상량시 한 수로도 볼 수 있지만, 상량문을 6수로 나누어서 시로 지은 것이다.

15) 梁晉泰 來叔 47수, 裴慶會 大遇 1수, 高時伯 斗明 1수, 林士駕 木 1수, 趙雲老 景望 4수, 趙文老 景昌 1수, 李彝仲 敏敍 2수, 朴退夫 敏行 1수, 李建仲 元杓 1수, 高時伯 1수 (위에도 다른 시가 실림), 趙濟鄉 杭 1수, 鄭混源 洑 1수, 曹德培 根夏 1수, 趙定而 正萬 2수, 趙文老 1수, 李晉汝 1수, 鄭景晦 光演 1수, 李德載 厚遠 1수, 李吉甫 壽祺 1수, 李子華 漢井 1수, 徐仲舉 鳳翎 1수, 鄭仲久 浹 1수, 鄭厚卿 東後 1수, 安仲和 汝諧 1수, 朴受汝 重繪 1수, 玄士休 徵 2수, 李汝涵 泳 1수, 金休徵 時瑞 2수, 梁一卿 聖揆 1수, 李仲剛 健命 1수, 趙定而 1수 (위에도 실림), 金子益 昌翁 2수, 1수는 長詩, 趙定而 1수 (위에도 실림), 金伯溫 鎮玉 1수, 李美伯 邦彦 1수, 李益泰 1수, 李伯亮 微臣 2수, 趙子以 尙健 2수, 梁敬之 仲直 11수, 金叔晦 慶麴 1수, 朴士元 光一 1수 長詩, 鄭季深 湜 1수, 李載大 夏坤 1수, 宋信甫 相允 1수, 金伯溫 1수 (위에도 실림), 趙定而 3수 (위에도 실림), 梁應之 吉夫 1수, 梁采之 君擇 6수(1717년 광풍각 중수 상량시), 金伯雨 春澤 2수, 趙寤齋 2수, 金伯溫 2수, 趙子以 1수, 李清斯 治 1수, 柳子時 乘 1수, 李德厚 堧 1수, 許華卿 紳 2수, 鄭達夫 敏河 1수, 金尊甫 信謙 2수, 李汝五 秉常 1수, 金太白 鎮商 1수, 李仲久 踐 1수 (모두 139수)

16) 양진태의 시는 『소쇄원사실』에 47수, 『방암유고』에 8수, 『월성세고』에 5수가 남아 있음은 일찍이 알려진 바가 있다. 권수용, 앞의 책, 122쪽.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이 그 문집이 전해지지 않은 까닭으로, 현재 이 책 『소쇄원사실』에서 그의 한시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제 그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을 달리하여, 인재의 「瀟灑園6絶」에 대한 시를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인재의 시 가운데 가장 앞에 실려 있는 시는 「하서선생의 시에 삼가 차운하다(敬次河西先生韻)」이다. 이 시는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다. 소쇄원의 대표적인 原韻詩라고 할 수 있는 시는 무엇일까? 소쇄옹의 시가 있었을 터이지만, 그 보다는 하서 김인후의 시 「瀟灑亭卽事」와 「又題瀟灑亭」이라는 두 시야말로 소쇄원을 대표하는 원운시로 오래도록 인정되고 있었음을 이 인재공의 시를 통하여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528년에 하서가 지은 「瀟灑亭卽事」라는 시에서는 소쇄정에서의 夜飲을 그리고 있다. 소쇄원 관련 이른 시기에 지어진 시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누정 ‘소쇄정’이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소쇄정이 지금의 대봉대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리고 하서는 5년 후 1533년경 다시 소쇄원을 찾아서 「又題瀟灑亭」이라는 시를 남긴다. 바로 이 시가 소쇄원의 가장 중요한 원운시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면양정 송순, 쌍청재 이수, 칠계 김언거, 석천 임억령, 고봉 기대승, 서하 김성원, 송강 정철 등 수 많은 시인들이 바로 이 시에 차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현의 차운시는 거의 다 『소쇄원사실』에 실려 있다. 소쇄원 원림문학에서 하서의 「소쇄원48명」이 가장 유명하고 연구도 제법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⁷⁾ 그런데 후대 시인들에게 이 「又題瀟灑亭」이야말로 대표적인 원운시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1528년에 하서가 지은 「瀟灑亭卽事」는 ‘술이 익어 은근히 취기 오르니[酒熟乘微醉]/ 저절로 시를 이뤄 나직이 읊조리네[詩成費短吟]’라고 하는 등 봄날 소쩍새 우는 밤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에 대한 차운시들이 잘 나타나

17) 일찍이 이종건 교수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쇄원48명」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번역은 또한 『국역 하서전집』을 번역하였던 우전 신호열 선생의 번역문이 가장 이른 번역이다. 최근에는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무등산과 고전문학』(국학자료원, 2018) 등이 있다.

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가 바로 원운시처럼 퍼지지는 않은 것 같다. 하서는 그로부터 5년 후 1533년에 다시 소쇄정을 찾아서 「又題瀟灑亭」 두 수를 남기는데, 바로 이 두 수를 차운하는 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1533년에 지은 이 시에서 ‘연못의 고기들 일찍이 나를 알아보고[池魚曾識面]/ 동산의 나무들은 몇 아름이나 자랐는가[園木幾添圃]’라고 하였다. 당시에 연못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고 있었음을, 동산에 나무를 심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하여 ‘눈앞에 속된 물건 전혀 없으니[眼前無俗物]/ 마음으로 정미함을 깨닫는다네[心地見精微]’라고 하였다. 이미 소쇄정이 속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精微함을 느끼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서의 이 시는 매우 중요한 소쇄원의 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인재의 시에서도 이 시를 차운하여 지은 작품을 맨 처음 실은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바로 이 시가 오랫동안 소쇄원을 대표하는 시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재의 시는 「敬次河西先生韻」으로만 되어 있지만, 바로 하서의 「又題瀟灑亭」 시를 차운한 것이다.

소쇄원에 전해오는 일들은	舊業傳瀟灑
세상을 초월한 마음에서 왔다네	超然世外心
맑은 샘물은 만물을 운택하게 하였고	清泉宜澤物
아름다운 나무는 그늘을 이뤄 좋아라	佳木好成陰
누추한 집에서 안자顔子의 즐거움을 찾고	陋巷尋顏樂
풍우風雩는 증점曾點과 같이 하였네	風雩與點吟
높이 날 듯 한 누대 위의 뜻을 지니고	翱翔臺上意
옥玉 나무 가지의 봉황새를 기다리네	應待環枝禽 ¹⁸⁾

소쇄원은 세상을 초월하였다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떠나 있음이 주요한 소쇄원의 공간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맑은 샘물, 아름다운 나무가 또한 소쇄원의 주요한 경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안자처럼 안빈낙도하며, 증점

18) 이하 모든 한시는 『瀟灑園事實』 권13 「諸賢題詠唱酬」에 실려 있다.

(曾點)처럼 소박하게 무대(舞臺)에서 바람 쐬고[風乎舞雩]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을 인생관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증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다음은 하서의 시를 차운한 두 번째 시이다.

약관의 나이에 임금의 총애를 받았는데	弱齡承寵錫
중년에는 사립문 닫고 바위 위에 누웠다고	中歲臥巖扉
한 길 삼익삼을 위해 열어 놓았고	一逕開三益
천 개의 산봉우리 사방을 에워쌓았네	千峯合四圍
기꺼이 세상을 잊은 지 오래라서	果於忘世久
귀한 곳은 숭상하는 소리 드문 법이라	貴在賞音稀
용사의 액을 당하던 날에	當日龍蛇厄
요망한 무지개가 소미성을 꿰뚫었다네	妖虹貫少微

약관의 나이에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는 말은 소쇄공 양산보가 1519년 현량과에 추천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중년에 소쇄원을 경영하고 삼익을 열었다고 하였다. 삼익이란 益者三友라는 말로 좋은 벗이라는 말이다. 다른 뜻으로는 원림에서 좋은 세 친구들, 대나무 매화나무 소나무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龍蛇厄이란 흔히 십이지의 辰年과 巳年으로 사람이 죽는 액운이 든 해를 용사의 해라고 말한다. 그런 액운이 당한 해에 요망한 무지개가 處土星인 少微星을 뚫어버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쇄공의 만시에도 쓰이던 시구였는데, 곧 소쇄공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시는 소쇄공의 일생을 간략하게 한 편으로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하서 선생의 시에 대한 차운시는 두 수가 더 있다. 모두 다 소쇄공을 그린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소쇄원의 정신적 가치나 상징들을 잘 알 수 있다. 원림의 창건자 소쇄공을 기리는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면은 다음 시 인재공이 지은 「소쇄공유적십도/瀟灑公遺蹟十圖」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쇄원 원림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한시이다. 소쇄공의 남은 발자취를 열 가지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에 각각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두 세대에 걸친 열 가지 유적을 십도(十圖)그림으로 그리고, 그림 위에 시필(詩筆)을 얻고자 김농암(金農巖), 삼연(三淵), 석양정(夕涼亭) 중숙계(仲叔季)¹⁹⁾ 세 사문에게 이 글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한 수의 시를 짓는다.

석양(夕涼)의 그림과 벽계(蘗溪)의 시
 겸하여 농암(農巖)의 기이한 필법
 만약 삼절(三絶)을 세 사람에게 얻는다면
 보배처럼 길이 세상에 전할 보물로 삼기를²⁰⁾

이는 매우 중요한 (遺蹟圖) 관련 자료인데, 그 그림이 완성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 그림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그림 병풍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인재공의 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소쇄공과 고암공 두 사람의 행적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에 정리한 시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소쇄원은 소쇄공과 고암공이라는 두 사람을 기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양(夕涼)의 그림이란 노가재 김창업의 그림을 말한다. 노가재는 일찍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유적 십도를 그리도록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벽계(蘗溪)는 삼연 김창흡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다.

김창흡은 1717년 소쇄원을 방문하여 오래도록 머물렀다. 당시에 「남유일기」를 남기고 있어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재는 1714년에 이미 운명하였으니, 그 보다 이른 시기에, 이 유적십도 시를 보내주어, 그림을 그리고 시를 받아서,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유적도 병풍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유적병풍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쇄공유적십도[瀟灑公遺蹟十圖]」는 <가정에서 학문을 배우다[家庭承學]>

19)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석양정(夕涼亭) 김창업(金昌業)을 가리킨다.

20) 兩世十蹟, 擬作十圖, 要得詩筆于圖上, 吟呈金農巖, 三淵, 夕涼亭, 仲叔季三斯文, 夕涼之畫蘗溪詩, 兼要農巖筆法奇, 三絶倘從三子得, 珍藏永作世傳資.

으로부터 시작하여 <불타려는 선산에 비를 내리다[先壘救焚]>라는 시까지 모두 열 수로 되어 있다. 무척 흥미롭게 소쇄공의 일생을 시로 표현하여 놓았다. <책을 지고 스승을 찾다[負笈尋師]>에서는 정암 조광조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밝은 조정에서 낙제를 하다[明廷下第]>라는 시도 있어서 과거에 바로 합격하지 못했음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세상을 피하여 들어갔는데, <오리를 보고 집터를 잡다[相鳧占宅]>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천 년 동안 아끼고 감춰놓은 땅	慳秘千年地
등덩굴과 만목萬木이 우거졌다네	藤蘿萬木陰
계곡의 신령이 알려주려 했는지	溪神如有報
짐짓 한 쌍의 오리를 보내주었지	故遣一雙禽

또한 마지막에는 <불타려는 선산에 비를 내리다(先壘救焚)>는 시를 지었다. 선대의 묘소 근처에서 나무꾼에 의한 실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와서 불길이 멈추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집안에 오래도록 전해오는 효행담이다.

들불이 묘소 가까이 덮쳐 오는데	野火延丘壘
산바람에 화염이 더욱 거셌다네	山颺烈焰橫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니	俄然天降雨
효성에 감동함이 참으로 분명하네	孝感諒分明

다음으로는 「고암공유적십도[鼓巖公遺蹟十圖]」가 있다. <5세에 벽용(擗踊)하다[五歲擗踊]>로부터 시작하여 <사문에서 벼루를 받다[師門受硯]>까지 모두 열수의 시를 남겼다. 벽용(擗踊)이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른다든 뜻인데, 5세에 이미 그러하였다니 고암공의 남다른 천품을 알 수가 있다. 또 고암은 거창과 함양 현감을 지냈는데, 이에 대한 시를 <임금이 예우로 접견하다[榻下引對]>라는 시로 남겼다.榻하(榻下)는 걸상을 내린다는 뜻으로, 임금이 어진 사람을 예우한다는 말이다. 인대(引對)는 임금이 자문하기 위해

신하를 불러 접견함을 이르는 말이다.

영외의 수령으로 가던 날에	嶺表分憂日
조정외 물으심에 대답 하였다네	朝端賜對時
장차 백성을 교화하고 싶다는 말	終將興化志
임금께서 깊이 알아주었다네	深荷聖明知

또 고암은 알다시피 하서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이에 대한 내용도 시로 나타냈는데, <사문에서 벼루를 받다(師門受硯)>라는 시를 남겼다.

복제(服齋) 노인은 일찍이 붓을 보내시고	服老曾傳筆
하서(河西)께서는 벼루를 또 주시었네	河翁亦授硯
사문(師門)의 이끌어주신 의리여	師門誘掖誼
모두가 대동大東의 현인이셨다네	俱是大東賢

복제(服齋)는 기준(奇遵)의 호인데, 소쇄공과 함께 『기묘명현록』에 수록되었으며 기대승의 삼촌이다. 일찍이 고암에게 붓을 보내준 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소쇄공과 고암공 두 사람에게 대한 행적 각각 열 가지로 그림을 그리려고 시를 창작하였다. 이 그림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인재의 한시가 남아 있어 이런 유적도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고 여겨진다.

인재공은 또 집안 조상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선양 사업을 무척 열심히 하였다. 그가 주도적으로 집안 선대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글들을 당시의 명현들에게 받으려고 하였고, 이 책 『소쇄원사실』을 만들면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족보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는데, 선대들의 가장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다음 같은 「조상 4대의 가장(家狀)을 기록하고 느끼어 짓다[錄先世四代家狀感而有作]」라는 시를 남겼다.

원래 충효는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사업이요	元來忠孝我箕裘
시례(詩禮)의 집안 소리는 백세를 흘렀다네	詩禮家聲百世流
유업을 성취하여 널리 알리기를 소원하니	遺業尙成傳布願
쇠잔한 후손은 그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孱孫所望更何求

이 밖에도 소쇄원에 대하여 지은 시가 여러 수 실려 있다. 「소쇄원, 제봉의 시 두 수를 차운하다[瀟灑園, 次霽峯韻二首]」, 또 「침계문방, 김하서의 시 두 수를 차운하다[枕溪房, 次河西韻二首]」 등이 실려 있다.

한편 그는 「소쇄원사경(瀟灑園四景)」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 시의 주에 ‘48영에 이미 소쇄원의 풍물이 그려져 있지만 이 4경도 특이하여 삼가 4수를 짓다[四十八詠, 已畫瀟灑物事, 而但此四景, 亦一奇勝, 故謹作四詠]’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소쇄원 48영에 더하여 다시 네 가지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겨울 골짜기의 얼음 기둥[冬壑氷標]>과 <밤 베개에 들리는 물소리[夜枕泉響]>, 그리고 <비온 뒤 바위에 넘치는 물[雨後巖漲]>과 <달 아래 소나무 그림자[月下松陰]>라는 4수의 연작시이다.

밤 베개에 들리는 물소리	夜枕泉響
객이 잠자리에 막 들고나니	宿客眠初定
샘물 흐르는 소리 더욱 맑구나	鳴泉響益清
어렴풋이 깊숙한 꿈결에	依微幽夢裏
비오는 소리인가 의심했다네	疑却雨新聲

객은 물론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시에서 소쇄원은 물소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 시구들이 많다. 이 시를 통하여 당시에도 물 흐르는 소리 등은 소쇄원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재공의 시에 이른바 「소쇄원6절」 시가 실려 있다. 이 시 또한 매우 중요한 시이므로,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기로 하겠다. 이 「소쇄원6절」에 있어서 인재공의 시는 <소쇄 고조부 애일가사를 삼가 번역하여 일가친척에게 보

여 경계하다[謹翻瀟灑高祖愛日歌辭警示一家人]>라는 시가 실려 있다.

자애로운 까마귀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日裏慈鳥聽我說
너는 일찍이 새이지만, 새 중의 증삼이로다	爾禽曾是鳥中參
내게는 북당에 두 분의 학발鶴髮이 계시는데	我有高堂雙鶴髮
원컨대 아침에 천심天心에 비춰주어라	願將朝彩照天心

이 시에 대한 주는 다음처럼 붙어 있다. 그 노래는

해 가운데 까마귀야 가지 말고 내말 들어
 네 비록 그러하나 새 가운데 증삼이네
 북당에 학발 계시니 증천에 오래 날아라²¹⁾

이 ‘애일가’는 주를 보면, 3행으로 이루어진 시조의 형태로 보인다. 이는 물론 효행에 대한 내용을 소재공 양산보가 시조로 읊은 작품이다.²²⁾ 증삼曾參은 공자의 제자인데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까마귀를 그에 빗대어 읊어서, 효행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소재공은 「孝賦」라는 대표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이 시조 작품을 통하여도 그의 효행문학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점도 큰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제현제영창수」에 실린 인재공의 한시를 대략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는 그 가운데 중요한 시로 여겨지는 「瀟灑園6絶」이라는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인재의 「瀟灑園6絶」에 대한 고찰

방암 양경지는 인재의 「소쇄원30영」 시를 차운하였는데, 현재 인재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서, 인재의 「소쇄원30영」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소

21) 其歌曰, 日中鳥兮勿去而聆我語, 爾即雖然而鳥中之曾參也, 鶴髮在北堂長在中天, 云云.

22) 김신중, 「양산보 애일가의 전승과 성격」, 『한국시가문화연구』 25, 한국고시가문화회, 2010.

쇄원사실』 권13 「제현제영창수」에 인재의 「소쇄원30영」 가운데 일부분인 「소쇄원6절」이 실려 있다. 이는 앞선 연구자들도 간단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문헌을 통하여 인재의 「소쇄원30영」의 한 부분인 「소쇄원6절」, 즉 「소쇄원6영」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인재는 소쇄원 경물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이를 시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바로 「소쇄원6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섯 가지 시이다. 『소쇄원사실』 인재의 시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뒤에 나오는 방암 양경지의 시를 보면 이 인재의 시를 차운하여 지었는데, 이를 「소쇄원6절」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는 ‘소쇄원, 제월당, 광풍각, 애양단, 대봉대, 오곡문’이라는 소쇄원의 여섯 군데 경물이다. 이는 지금도 소쇄원의 핵심 경관에 해당되는 곳들이어서, 17세기 후반 당시에 이 여섯 가지를 중요한 경관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보면 인재나 방암이 처음에 바로 「소쇄원30영」을 지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인재는 먼저 여기 실린 「소쇄원6절」을 지었고, 나중에 ‘家山30詠’이라는 이른바 「소쇄원30영」을 확대하여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소쇄원사실 편찬 간행 당시에는 이미 인재의 운명 이후가 되므로, 이들 작품이 다 있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6수 즉 「소쇄원6절」만을 싣고 있다. 이제 인재의 「소쇄원6절」 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소쇄원(瀟灑園)」이라는 시이다. 여기에는 ‘우암 선생이 몸소 쓴 글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폭포수 물 뒤 바위 남쪽에 새겼다[有尤菴先生手筆, 後刻于瀑流巖南]’는 주가 붙어 있다.

홀로 즐긴다고 세상을 잊는 건 아닌데	獨樂非忘世
평천을 부질없이 경영하였다니	平泉謾有營
어떠한가 소쇄원의 경치는	何如瀟灑境
물에다 짝을 맞추어 이름을 지었구나	媿水以成名

알다시피 평천은 중국 당나라 이덕유의 별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金谷이나 平泉을 중국 원림의 대표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시 후반에서

소쇄원의 이름이 시원한 물소리에 짝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소쇄라는 이름이 바람소리나, 다른 어느 소리가 아닌 물소리가 가장 근접한 의미 지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차운한 시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을 보자.

소쇄원 육절	중부인재공 운을 차함	瀟灑園六絕	次仲父忍齋公韻
초연(超然)이 멀리 세상에서 은둔한 날		超然遐遯日	
정자와 연못을 이렇게 만드셨네		亭沼此經營	
물색은 특히 시원하고 깨끗하니		物色偏瀟灑	
명성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알겠네		方知不爽名	

소쇄원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그 주요한 공간인식으로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색이 시원하고 깨끗하다는 점이 또한 소쇄원 경물의 주요 인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재의 「광풍각(光風閣)」이라는 시를 보자. 여기에는 ‘침계방이 다른 이름이다[枕溪房一號]’는 주가 붙어 있다.

텅 비어 밝은 신선의 방이요	虛白丹丘室
공중에는 소자의 누가 떠 있네	空中邵子樓
차가운 바람은 겨드랑에 스며들고	冷颺雙腋御
시원한 물 기운은 창에 스미네	灑氣入窗浮

인재는 광풍각에서 허백(虛白)의 세계를 본다고 하였는데, 방암은 제월당에서 허백의 세계를 본다고 하였다. 虛白은 莊子에 나오는 虛室生白이라는 말로, ‘방이 텅 비면 스스로 환해진다’라는 뜻이다. 두 건물에서 다 허백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2구에서 소자루가 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소자(邵子)의 누각’이란 송나라 때의 학자로 정자(程子)가 소강절(邵康節)을 칭찬하여 공중누각처럼 맑고 시원한 사람이라 하였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다음은 인재의 「애양단(愛陽壇)」

시이다.

높은 곳에서 한가로이 머리를 말리고	高處閑晞髮
여유로울 때는 혼자서 별을 쪼이네	幽時獨負暄
아침의 별을 잡을 수만 있다면	朝光如何掬
반드시 임금에게 드리고 싶다네	端欲獻君門

애양단은 아침의 별이 좋은 장소인데, 그 별을 임금에게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따뜻한 햇별이孝의 상징이 아니라, 忠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로 인재의 「대봉대(待鳳臺)」 시이다.

대나무는 구슬 같은 열매를 토하고	竹吐琅玕實
오동은 매우 소박한 그늘을 지니네	桐舍太素陰
아침 햇살 천길 아래로 뻗치니	朝陽千仞下
때마침 아홉 무늬 봉황이 내려오는지	時下九苞禽

조양(朝陽)은 아침 해를 말한다. 아침 햇살이 뻗어나니, 이를 마치 봉황이 내려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아침 햇살에 봉황을 그린다는 뜻으로 ‘조양봉황’이라는 화제(畫題)도 있다. 이를 차운한 방암의 「대봉대(待鳳臺)」 시이다.

대 앞에는 죽실(竹實)이 가득하고	臺前多竹實
대 위에는 오동나무 그늘 드리우네	臺上散梧陰
천 년 세월 누대는 여전히 서 있는데	千載臺猶在
어느 때나 봉황새는 내려 오려나	何時下彩禽

대나무와 오동나무는 대봉대를 지키는 나무들이다. 인재는 아홉 무늬 봉황이 때마침 날아온다고 하였지만, 방암은 어느 때나 내려올까 좀 더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오곡문(五曲門)」 시이다.

어렴풋 삼파(三巴)의 글자를 따왔으니	宛學三巴字
마땅히 구곡의 여울에서 나누어졌겠지	應分九曲灘
진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眞源知有沂
곧바로 행단으로 통해지리라	直透杏邊壇

인재의 시를 보면 구곡 가운데서 오곡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주자는 무이산 아홉 구비의 경치를 빗대어 「무이구곡가」를 지었는데, 이러한 九曲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시창작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 소쇄원도 당시 구곡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구이다. 삼파(三巴)의 글자란 바라는 글자가 세 번 꺾이는데, 그 물줄기가 세 번 꺾여있다는 말이다. 또 행단(杏壇)이란 공자가 학문을 강론했던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소쇄원 위에 강학을 하던 서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차운한 방암의 「오곡문(五曲門)」 시이다.

물가 해오라기 세 마리 물에 떠 있는데	鷺渚加三水
오곡문은 거의 여울물이 없구나	龍門少幾灘
동풍에 떨어진 꽃잎 물에 가득하니	東風花滿浪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지 않았구나	不遣鎖仙壇

방암의 이 시는 병자년 7월에 지었다고 주가 붙어 있다. 시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꽃잎들도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서 신선이 사는 선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시들을 먼저 「소쇄원6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면, 처음에는 「소쇄원30명」이 아니라, 「소쇄원6절」로 부를 수 있는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30명 가운데 이 6수를 특별히 6절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시를 보면 당시 소쇄원의 주요 경물 6가지를 선정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 후 30명으로 확대시켜 창작을 하였을 것이다. 인재의 「소쇄원30명」은 17세기 후반 소쇄원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영이다. 그 가운데 6명이 이 『소쇄원사실』이 있어서 알게 되었으며, 나머지 제영도 찾아 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5. 맺음말

앞서 말하였듯이 소쇄원에서 인재공이 편찬을 시작한 『瀟灑園事實』은 무척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를 통하여 소쇄원의 역사와 시문을 상당 부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책은 권1에서 권13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권1에서 권12까지는 모두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집안의 世稿처럼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권13에는 附錄이라고 하여 「諸賢題詠唱酬」가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13의 전반적인 내용과 인재 양진태의 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인재의 한시 47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다행이다. 더구나 이 시들은 소쇄원 문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 소쇄원 原韻詩로 하서의 「즉사소쇄정」 시는 16세기뿐만 아니라, 17세기 말에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인재는 「소쇄공유적십도」, 「고암공유적십도」 등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시를 남겨놓았다. 소쇄원에 그런 유적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은 미술사에서도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그 유적도가 완성되었는지 알 수도 없어서 무척 아쉬운 점이다.

이 글은 주로 인재의 「소쇄원6절」을 통하여, 그의 「소쇄원30영」 시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였다. 「소쇄원30영」은 처음에 「소쇄원6절」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고 보인다. 이 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五曲門」 등의 시에서, 九曲과의 관련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인재의 시가 좀 더 사실적, 교훈적이라면 방암의 「소쇄원30영」은 비교적 서정적이고 신선 세계를 그린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료가 보충되어 더 비교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이 책 『소쇄원사실』에 실린 인재의 47수의 시는 이처럼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瀟灑園事實』, 중간 석인본, 1903.

『方菴遺稿』, 향토문화연구자료 11집, 전라남도, 1987.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경인문화사, 2009.

김대현,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명’ 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2000.

김대현 외, 『호남누정 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소 편, 2015.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 미디어, 2007.

김신중, 「양산보 애일가의 전승과 성격」, 『고시가연구』 25, 2010.

박명희, 『호남한시의 분석적 이해』, 보고서, 2019.

이향준, 「소쇄원사실, 불완전하게 열린 책」, 『소쇄원 학술행사 발표집』, 2018.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무등산과 고전문학』, 국학자료원, 2018.

천득염·김대현 공저, 광주문화재단 총서, 『소쇄원』, 심미안, 2018.

한예원, 「양산보의 「孝賦」와 「小學」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31, 2008.

| Abstract |

A Study of In-Jae Yang Jintae's Hansi(漢詩) in 『Sosewonsasil(瀟灑園事實)』

Kim, Dae-hyun

This paper focuses on Hansi(漢詩) of In-Jae Yang Jintae in “Soswaewonsasil(瀟灑園事實)”. Yang Jin-tae,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ompilation of “Soswaewonsasil”, left many literary works in his life.

We have hardly understood his literary feature because his personal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had not been found. However, we have found his 47 poems listed in “Soswaewonsasil”, which is valuable material that we can look at his literary feature.

His poetry begins by borrowing the rhymes of Kim Inhoo's poem, “Soswaewon Poems(瀟灑園卽事)”. We understand that thi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ems related to Soswaewon. He left not only many poems related to Soswaewon, but also added four more poems supplementing the famous “Soswaewon 48 Poems”.

Moreover, “Soswaewon Six Poems” shows that In-Jae Yang Jintae's literary works develops into “Soswaewon Thirty Poems”, which was written by Bang-Am Yangkyungji.

Yang Jintae devoted to the business of family prosperity including publishing family genealogies. His poetry also shows that he was working on the creation of Hansi in terms of factual record.

Key words : Soswaewon, Sosewonsasil(瀟灑園事實), In-Jae Yang Jintae.